

# 창업기획자 '빈익빈 부익부' 심각

### 300번째 창업기획자 등록...광주 6곳·전남 1곳 2.5% 수준 서울 147·경기 31·인천 9곳 등 수도권 비중 전체의 65.8% 4년간 1703개 회사 2253억 투자...7000여명 신규고용 창출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등록 제도 4년 만에 이달 300번째 창업기획자가 나왔지만 광주·전남지역 비중은 2.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개한 창업기획자 등록현황에 따르면 9월30일 기준 전국 창업기획자는 284명으로 집계됐다. 광주에는 6개 기업(2.1%), 전남에는 1개(0.4%)가 있다.

창업기획자는 단순 투자가 중심이 되는 벤처투자회사(벤처캐피탈)와 달리 분야별 전문가들이 창업기업을 선정하고 투자해 성장을 돕는 회사다.

중기부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창업기

획자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창업기획자 제도를 활성화해 초기 단계의 창업기업을 발굴해 투자하고 키우기 위해서다.

하지만 광주·전남 창업기획자 비중은 전국의 2.5% 수준으로, 제도 시행 3년이 지나도 여전히 수도권에 몰려있다.

창업기획자 사·도별 등록현황을 보면 서울(147개), 경기(31개), 인천(9개) 등 수도권 비중이 전체의 65.8%에 달한다. 나머지 지역 비중은 34.2%(97개)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대전이 22개(7.7%)로 가장 많았고, 부산(18개), 대구·충남(8개), 광주·전북·경북·강원(각 6개), 경남(4개), 세종·충북·울산·제주(각

3개), 전남(1개)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창업기획자를 나누면 광주에서는 주식회사가 4곳으로 가장 많았고, 비영리법인 1곳, 창조경제혁신센터 1곳이 있었다. 전남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단 1곳이 있었다.

전문분야로는 광주에서는 IT·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전문으로 하거나(인프라비즈㈜), 헬스케어·빅데이터(㈜스페이스점프), IT 융합산업(주식회사아이젠), 농식품분야(주식회사 지티티비) 등을 다뤘다.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해 광주시 서구에 문을 열었고,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올해 여수에 생겼다.

중기부에 따르면 벤처투자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창업기획자들은 4년여 간 1703개 회사에 투자했다. 투자금액은 2253억원으로 기업당 1억3000만원 정도다.

중기부가 이들 272개 창업기획자 중 225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창업기획자에게서 투자받은 기업은 1655개였고 이들 기업의 고용 인원은 투자 후 7013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당 평균 고용 인원은 투자 전 6.3명에서 투자 후 10.5명으로 4.2명 늘었고 매출은 2억8000만원에서 5억2000만원으로 92.9% 증가했다.

투자받은 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가 30.2%로 가장 많았고 바이오·의료(22.1%), ICT 제조(12.7%), 문화·콘텐츠(8.0%) 등의 순이었다.

국내 창업기획자의 평균 자본금은 5억 9000만원이고 전문인력은 2.7명이며 2.3개의 창업기업 보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창업기획자 평균 자본금과 전문인력 등은 8월 말 기준 창업기획자 272개 중 창업 투자회사 등을 겸업하는 32개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3개를 제외한 237개 기준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조계현 원장의

## 특 특 창업이야기



### 광주 프랜차이즈산업 오해와 이해

지난 11월4일 진행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광주시의 프랜차이즈 지원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소 심도 깊게 다뤄진 듯하다.

필자 역시 창업과 프랜차이즈 관련 업계에 종사하기에 관심을 가지고 해당 감사 동영상상을 유심히 지켜봤다. 참고로 광주시가 2020년도에 지역 프랜차이즈산업 육성을 위한 '우수 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사업'에 투입한 지원예산은 최초 1억원으로 책정됐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예산 일부가 삭감되면서 총 8500만원으로 줄었다.

사업비 1억원이 삭감 없이 지출된 2019년도 기준으로 해당 사업의 결과를 살펴보면 광주시 관내 프랜차이즈 본사 중에서 총 10개 업체가 시스템 구축, 디자인 개발, 마케팅 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았다. 34개 업체가 프랜차이즈 CEO과정을 이수했고 18개 업체가 슈퍼바이저 양성과정의 교육을 받았다.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프랜차이즈 사업과 지원사업 때 1개 업체당 평균 4500만원의 지원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비교하면 겨우 2개 업체 지원예산으로 광주시는 62개 업체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 셈이다.

다시 화제를 돌려 시의회 행정감사 과정에서 지적한 광주시 프랜차이즈 산업의 문제점들이라는 것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해 필자의 시각으로 팩트체크를 해보기로 하자.

아마도 질문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요약이 가능하지 싶다. 첫 번째 질문은 관내 프랜차이즈 협업 종사자들이 잠신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 프랜차이즈 산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내용이다. 프랜차이즈 아이템은 새로워야만 성공하는 분야가 아니고 기존 아이템을 시 설이나 메뉴, 서비스 부분에 대해 업그레이드 하거나 차별화를 통해서도 충분히 성공 가능한 분야다. 너무 이색적이고 새로운 아이템의 출시는 고객의 적응기간이 길어져서 자본의 넉넉한 본사가 아닌 소규모 본사들의 경우 자칫 이런 실패를 부른다. 국내 전체 프랜차이즈 아이템들을 살펴봐도 완벽한 형태의 새로운 아이템은 몇 년에 한두 개 나오는 수준에 불과하다.

두 번째 질문은 타 시도에 비해 프랜차이즈 관련 예산도 많이 부족해서 전문조직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광주시의 프랜차이즈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전략과 장기비전이 없다는 내용이다. 광주시가 2015년도부터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에 2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예산으로 편성했지만 지금은 1억까지 예산이 증액돼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광주 시와 시의회에서 더 적극적인 예산편성과 다양한 지원사업의 확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세 번째 질문은 프랜차이즈 교육기관의 다양화를 위해서 현재 특정대학 특정학과가 주관하고 있는 교육을 더 다양한 교육기관으로 확대해보라는 내용이다. 호남권에 유일하게 딱 하나 있는 프랜차이즈 전문학과를 가진 교육기관이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초기부터 시행해왔고 현재는 교육기관 공모를 통해 평가위원들의 평가에 의해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네 번째 질문은 광주시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을 통해 전국화 브랜드를 육성하지 못했다는 내용과 고용창출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2019년도 기준으로 관내 프랜차이즈 업체의 전국화 진입 브랜드는 10여 개이며 일자리 창출은 100개 이상의 가맹점 출점으로 인해 4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참고로 광주시의 2019년도 1인당 일자리 평균 창출비용은 1800만원이었으며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을 통해 창출된 1인당 일자리 창출비용은 평균 21만원 수준이었다. 이 정도면 질타가 아닌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든다.

<한국지역산업연구원 원장>

### 광주·전남 중기청

#### '웰컴투 팁스' 개최

#### 내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오는 12일 '2020년 웰컴투 팁스' 호남권 행사가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이날 '팁스'(TIPS) 호남권 행사를 열어 창업기업과 팁스 운영사 간 접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관한다.

팁스는 성공벤처인 등 민간(운영사)을 활용해 창업팁을 선발하고 민간투자자와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을 연계해 전문인력의 창업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다.

투자설명회(IR)에는 사전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된 10개 기업과 27개 팁스 운영사가 참여한다. 우수 창업팀 3개팀에는 지방중기청상과 상금(1위 100만원)이 주어진다. /박기용 기자 pbxer@



"겨울엔 모피가 딱이야" 롯데아울렛 광주수원점 직원이 1층 '진도모피' 임시매장에서 코트, 조끼, 재킷 등 다양한 모피류를 선보이고 있다. 이 매장은 내년 1월까지 이들 상품을 60~80% 할인된 가격에 내놓는다. <롯데쇼핑 제공>

### 광주AI 스타트업 캠프 운영기관 27일까지 모집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광주 인공지능(AI) 스타트업캠프' 운영기관을 오는 2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광주 AI스타트업캠프는 서구 농성동 광주·전남중기청 옛 청사 본관 4층과 별관 3

층에 총 3724㎡ 규모로 조성된다.

창업자, 투자자, 창업지원기관 등이 집약된 AI 중심의 개방형 창업공간으로 꾸며질 계획이며, 내년 7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운영기관 신청자격은 (예비)창업자 교육,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 글로벌 진출

등 단계별 지원이 가능한 법인(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제외) 또는 단체이다.

선정 기관은 입주기업 선정 및 교육, 창업상담, 소통공간 운영, 입주 지원기관 모집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운영기간은 내년 1월부터 3년이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신청을 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11월27일까지 서구 동천동 광주·전남중기청 창업벤처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런중 청장은 "스타트업캠프는 인공지능 중심도시인 광주에서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